

# 수산업 역할의 再認識과 기본과제\*

최 정 윤\*\*

A Reconsider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and Its Basic Problems

Choe, Jung - Yoon

目	次
I. 서론	1. 수산업 역할의 재인식
II. 産業으로서의 수산업	2. 수산업의 고유기능
III. 經濟發展과 수산업의 역할	3. 수산업의 외부효과
1. 60년대 이전의 수산업 역할	V. 수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한 基本 課題
2. 고도성장기의 수산업 역할	VI. 결 론
3. 전환기의 수산업 역할	참고문헌
4. 국별 수산업 역할의 차이	부 록
IV. 수산업의 多面的 價値	Abstract

## I. 서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전환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첫째 해양법의 발효와 EEZ체제의 정착, WTO체의 강화, OECD 가입, 그리고 국제환경관련조약 등에 의한 원양어업의 조업규제와 수입개방의 압력 등 대외적 요인이며, 다음은 대내적으로 어로경비의 압박,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수산업의 기피와 어촌과소화 문제 등으로 인한 수산개별경영의 존립 위협이다.

이와같은 어려운 생산여건에서도 국민의 수산물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또 고급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기반의 확립 차원에서 그의 적극적 개발과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수산업의 제 문제를 개관하고 국내외의 경제 및 사회 변화

\* 이 논문은 1997년 3월 28일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의 제 3차 수산과학 심포지움 「수산해양정책의 현실과 미래」에서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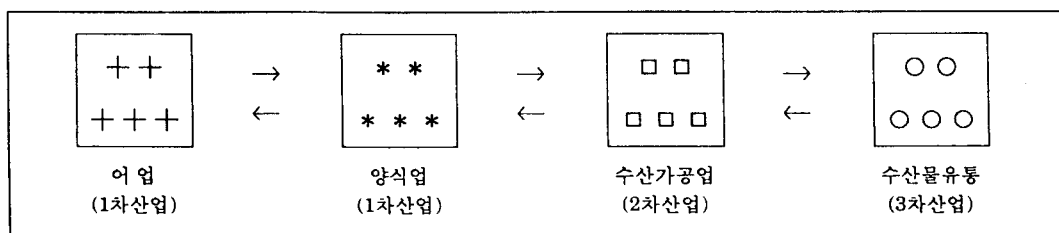
\*\*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교수.

와 그의 장기추세에 대응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수행해 나갈 과제와 역할을 재음미해 보기로 한다.

## Ⅱ. 産業으로서의 수산업

A. Marshall(1890)이래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대표적인 원시산업 또는 제 1차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근대 산업개념에서 이를 제외시켜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수산업은 고도의 생산장비와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과 현대과학의 적용이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의 수산기업 대부분은 이러한 수산기술과 자본장비를 활용하여 생산과정을 인위적으로 통제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漁撈 漁業은 어장확대와 자동화기술로 생산의 계절성을 극복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양식업은 종묘생산의 인공화와 유전공학 등에 힘입어 계획적 생산이 가능한 완전양식<sup>1)</sup>의 단계에 까지 와 있다. 이러한 수산업발달에 대하여 W.E.스랑크(W.E.Shrank, 1992)도 현대의 수산업은 공업생산의 진전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나의 근대적 산업으로(Modern Industrial Itself of Fishing Industry)」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은 어업과 양식업 외에 수산가공업과 수산물 운반업까지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의 범위를 더 확대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정책에서는 수산물 시장과 유통산업도 정책대상에 넣고 있다. 이는 수산업이 <그림 1>과 같이 제 1차 산업에서 제 2차 및 제 3차산업을 망라한 복합산업(complexity industries)으로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5년 말 현재 수산업에 투하되어 있는 총재산가액은 연, 근해 및 원양어업을 합쳐 총 7,543,901백만원으로 추산된다<sup>2)</sup>. 문제는 이같은 수산업에 투하되어 있는 막대한 투자자산이 잘 보호됨은 물론, 정상적인 운용가치를 발휘해 나갈 때 그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충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산업으로서의 수산업 구성

그러나 수산업이 근대산업으로서의 확립과 함께 지속적인 존속을 꾀해 나가는 데는 국민의 식량공급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그 때문에 개별경영의 자생력 배양을 소홀히 하여 정부 의존을 체질화시킨다거나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수산업에 대

- 1) 완전양식(完全養殖)이란 양식 대상생물의 人工孵化와 양식환경의 人爲的 統制로서 자연에 구애받지 않고 「종묘생산-양성-수확-판매」의 전 과정을 계획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는 양식기술의 단계를 뜻함.
- 2) 이것은 1995년말 현재 원양어업재산 1,175,120백만원, 근해어업재산 1,703,681백만원, 연안어업재산 4,665,100백만원으로 추산한 합계 총액이며, 연안어업에는 양식어업도 포함되어 있음.

수산업 역할의 再認識과 기본과제

<표 1> 수산업의 구성주체와 경제활동<sup>3)</sup> (단위 : 개, 천명, 천톤, 억원, 백만\$)

	경영체수	종사자수	생산량	생산액	수출액	비고
어업	76,493	263	2,405	36,093		1994
양식업	39,500	79	1,072	7,206		1994
계	115,993	342	3,477	43,299	1,358	1994
수산가공업	2,380	118	1,715	8,423	288	1991
수산물유통업	27,598	52	미상	미상	무	1991
합계	145,971	512	5,192	51,722	1,646	
국민경제상의 비중 *	5.3% <sup>(1)</sup> (2,786,103)	2.6% <sup>(2)</sup> (19,653)		1.1% <sup>(3)</sup> (3,028,670)	1.7% <sup>(4)</sup> (96,013)	1995

\* 1)~4)는 각주3)을 참조.

한 식량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지나친 식량안보개념의 강조는 오히려 수산업에 대한 투자효율과 생산성을 낮혀 나가는 데 한계성을 드러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산업의 유지와 발달에서 보듯이 그 산업의 정상적인 존립은 그의 주체인 개별경영의 원활한 움직임과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은 곧 기업집단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산업은 <표 1>과 같은 수산업 각 구성 부분의 활발한 생산활동과 여기에 수산가공업 및 유통부문의 지원 활동이 서로 밀접히 관련된 전체로서 하나의 산업체계(the industrial systems as a whole)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때 그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이 점에서 현대의 수산업은 「어업-양식업-가공-유통」의 각 부문이 상호보완의 관계에서 하나로 결합된 결합산업으로, 그리고 원시산업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도의 기술과 자본 및 인력의 결합을 통해 어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자본주의 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Ⅲ. 경제발전과 수산업의 역할

#### 1. 60년대 이전의 수산업 역할

절대빈곤의 시대로 대표되는 60년대 이전에 있어서 수산업이 담당해온 역할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 1) 긴박한 식량문제의 완화
- 2) 과잉인구의 수용과 취업기회의 확대

1950년대에 우리는 광복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경험해야 하였다. 이어 발발한 6.25동란과 전후복구활동 등으로 사회혼란과 국민의 기아문제는 한국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수산업의 존재와 그의 생산활동은 당시의 이같은 긴박한 식량문제를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3) (1) 국민경제상의 비중은 우리나라 총 사업체 수를 농가 호수 1,558천호를 포함 총 2,786,103개로 봄. (2) 총 종사자수는 총 고용인구로서 19,653천명(군인등 제외)으로 봄. (3) 1994년도 GNP(경상)총액은 3,028,670억원이며, 수산업비중 1.1%는 어업 부가가치 비율 0.9%, 수산가공업 부가가치 비율 0.2%의 합계임. (4) 1994년도 국가 총 수출액 960억\$에 대한 비율임.

였다. 그러나 생산력이 낮은 유치한 어업기술로는 필요한 수산물공급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해야 하였고, 수산업의 산업화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식량문제와 병행하여 과잉인구의 흡수와 고용대책 또한 당시로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지금은 농어촌인구가 총 인구의 13%정도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농어촌인구는 총 인구의 60%이상에 달하였으며, 어촌에는 이 가운데서 약 12%에 해당하는 170만가까이 거주하고 있었다. 60년대를 전후한 경제적 한국사회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촌은 이러한 과잉인구를 흡수하면서 많은 국민에게 식량공급과 함께 취업기회까지 제공한 중요한 부문이었다. 이러한 것은 수산업의 고유기능인 어업생산활동 못지 않게 사회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2. 고도성장기의 수산업 역할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하였다. 따라서 자립경제의 실현과 공업화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이었다.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으므로 공업화에 필수적인 시설재 및 원자재도입의 촉진을 위해서는 외화획득문제가 절실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수산업에 대해서 식량자급도수준의 향상외에 외화획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부가된 것이다. 광산물과 수산물외에 별다른 수출상품이 없는 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구조하에서 수산업에 대한 이와같은 수출진략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또 전국적으로 수협계통조직이 완성되고, 한일 어업회담의 성립과 수산청이 창설되는 등의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 수산업에 관한 제도, 행정 및 조직의 정비와 함께 전통적인 수산업경제구조가 일제히 재편성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반취업상태에 있었던 약 50만명(1975년까지)에 가까운 어촌노동력이 도시산업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조선, 전자산업 등의 약진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80년대 말까지 계속되면서 수산업에 대해서 (1) 해면의 고도이용, (2) 공산품의 어촌사회로의 확대와 구매력 증대 및 (3) 해양조사의 강화와 수산과학의 발달(부록참고)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이 강행되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어서 수산업 발전전략은 개발초기단계에서 이룩한 성장조건을 토대로 하여 시설을 보다 현대화·과학화 하고, 생산환경을 연안에서 근해로, 그리고 멀리 원양까지 광범위하게 넓혀 나가면서 천해양식업의 성장과 함께 해면이용을 고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 기간에는 사상 유례없는 연간 3백만M/T 수준의 어획고를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수산업의 확대는 식품가공업과 유통산업은 물론, 조선기계공업과 석유화학부문 등 관련산업발달에도 그 효과가 파급되어 공업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시장확대에 있어서 그의 기여도를 높여 나갔다. 이와같이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수산업은 다각적인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3. 전환기의 수산업 역할

최근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성으로 말미암아 국민경제와 전산업분야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UR협상타결과 이에 따른 WTO체제의 시작이다. 1996년 하반기의 OECD가입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변화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수산업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 경제환경변화의 영향외에도 UN해양법의 발효와 EEZ체제의 강화로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는 도·농간의 생활격차와 농수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도시의 비대화와 공해문제의 심각성 및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3D 또는 4D<sup>4)</sup>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70년대 이후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인구수는 농업에서는 무려 5백만명, 수산업에서는 약 60만명에 달한다. 숫적으로는 수산업이 농업의 약 1/8에 불과하지만 인구감소폭은 약 70%로서, 농업보다 30%이상 높다. 이는 어촌의 생활환경이 더 나쁘고, 소득수준이 낮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수산업이 갖는 산업적 위험성과 격렬한 노동, 낮은 직업가치성(a formidable as well as exiting job and too little foresight)이라고 하는 내·외적 직업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Roy, I. Jackson, 1972. 黃淳哲, 崔正鈞, 1996).

이와 같이 견잡을 수 없는 여러가지변화와 현상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전환의 시대(turning point)」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새로운 수산업문제와 그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재인식하여 수산업 발전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 1)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수산물의 양, 질, 안전도 및 가격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연안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 : 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으로서 한편, 연안도서 지역의 경제기반으로서, 수산물의 유지 발전문제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 3) 사회문화적 역할의 증대 : 국민의 휴양 보건기능, 해양어로문화의 보존, 해양개척정신의 개발 차원에서「人-海-魚」의 결합과 조화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4) 새로운 전략적 과제 : 원양어업과 국제관계, 부속도서의 귀속분쟁문제 등에 대한 해결논리, 해양지배력 및 그의 개척능력에 대한 대외적 leadership요건으로서 수산물의 유지 및 확대전략과 수산과학의 중요성 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될 것이며, 이러한 것은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양강국의 수산업발전전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 국별 수산업 역할의 차이

EU국가들은 1983년에 채택된 EU공동어업정책(The Common Fishery Policy of EU : CFP)을 통해 수산업을 Blue Europe의 상징산업으로, 그리고 고용확대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4) 3D란 직업과 근로에 대한 Difficult(어려움), Dangerous(위험성), Declear(비쾌적성)을 가리키며, 여기에 Distance(격리성)를 추가하여 4D라 한다.

대부분의 EU국가들은 수산업이 적어도 농업보다 4-5종이상 고용창출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산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산업을 더욱 보호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80년대이후 EU의 신공동어업정책이다(EU, New Common Fisheries Policy, 1992).

미국은 제2, 제3의 영토공간 확보와 해상방위능력의 배양 및 광활한 해양자원에 대한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수산업을 인식한다. 1977년 그들의 200해리 EEZ선포도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1972년 8월에 이미 미 국무성 정보연구국이 세계의 경제수역면적 추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sup>5)</sup>. 이와같이 미국은 일찍부터 수산물생산 목적보다는 해양지배력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산개입(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isheries)을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W. M. Terry, 1972).

한편 「캐나다」는 태평양연안에서는 어업의 산업화를, 대서양 연안에서는 지역사회유지와 고용기회의 부여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각각 수산업을 중시하며, 특히「캐나다」동부「뉴우파운드랜드」지방에 대한 어업지원정책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다(Peter F. Pearce, 1982).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르웨이」는 수출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을, 그리고 日本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어업생산의 국가적 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국가다. 日本은 수산물의 양적수요증대에의 대비는 물론, 질적 수요증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日本은 1996. 7「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하고, 1997. 1. 1부터 이의 일방적 시행을 선포함으로써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영토마찰과 어업분쟁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지금 日本은 국제법(UN해양법)의 논리를 앞세워 영해와 어업관할수역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해양을 매개로 하는 영토확장의 낡은 꿈을 다시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어로수역확보라는 미명 아래 전통적인 수산국 日本이 취해 나가는 신평창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해양제국주의적 주변수역전략에 우리는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 IV. 수산업의 多面的 價値

##### 1. 수산업 역할의 재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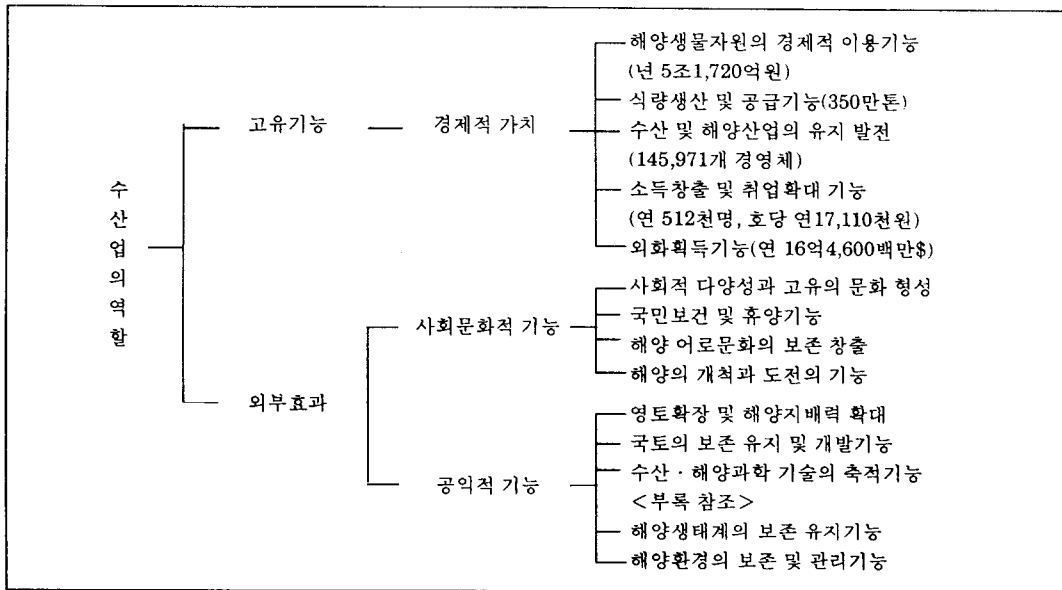
지금까지 경제발전과정을 통해서 대응해 온 우리나라 수산업의 여러 가지 역할을 재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체계화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산업은 그의 존재가치를 크게 수산물 생산공급 기능과 그밖에 여러 가지의 외부효과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의 교역적, 경제적 가치 못지 않게 다양한 비교역적, 외부경제효과도 대단히 크다.

##### 2. 수산업의 고유기능

수산업의 고유기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수계로부터의 식량추출 활동이다. 따라서 수산정책은 이리

5) Bureau of Intelligent and Research, International Boundary Study, Limits in The Sea, 1972, 8 (海洋開發と市場問題, 海洋産業, 研究會, 日本, 1975, P. 233에서 引用).

수산업 역할의 再認識과 기본과제



<그림 2> 수산업의 고유기능과 다면적 역할체계

한 수산업 고유기능의 확대와 발전에 역점을 두게 된다.

천연의 바다로부터 인류의 생존에 불가결한 식량을 추출하는 것은 수산업이 갖는 가장 핵심적 역할이며, 이것이야말로 어업의 역사적 기능이다. 수산물은「고질의 동물성 단백질식품(digestible quality foods)」이라는 식품특성과 자율갱신성을 갖는 자원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만으로서도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이상적인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표 2>는 세계인구증가율과 수산물을 포함한 총 식량생산량 추이를 비교한 자료이다. 여기서 보면 70년대까지 식량생산은 인구증가율을 어느정도 上廻하나 81-91년사이에는 인구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세계의 인구증가율과 식량생산량 추이

연도	세계인구 추이		세계식량생산량 추이(M/T)			식량생산 증가율(배)		
	인구규모(명)	증가율(배)	계	농산물	수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1971	3,679 × 10 <sup>6</sup>	0	2,946 × 10 <sup>6</sup>	2,957 × 10 <sup>6</sup>	67 × 10 <sup>6</sup>	0	0	0
1981	4,530 × 10 <sup>6</sup>	1.23	3,920 × 10 <sup>6</sup>	3,846 × 10 <sup>6</sup>	74 × 10 <sup>6</sup>	1.32	1.30	1.16
1991	5,385 × 10 <sup>6</sup>	1.20	4,553 × 10 <sup>6</sup>	4,436 × 10 <sup>6</sup>	97 × 10 <sup>6</sup>	1.16	1.15	1.31
1992	5,466 × 10 <sup>6</sup>	1.01	4,718 × 10 <sup>6</sup>	4,620 × 10 <sup>6</sup>	98 × 10 <sup>6</sup>	1.04	1.04	1.03
1993	5,547 × 10 <sup>6</sup>	1.01	4,842 × 10 <sup>6</sup>	4,741 × 10 <sup>6</sup>	101 × 10 <sup>6</sup>	1.03	1.03	3.06

주 : 농산물은 곡물과 축산은 물론, 야채, 과일까지 포함된 모든 농축산물 생산 총계임.

자료 : FAO, Year Book of Aquaculture Statistics, 1992. Year 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2. 農林水産省, 國際農林水産統計(日本), 1995.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식량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조금 앞지르지만 이정도로서는 앞으로 식량수요의 절대량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은행보고서다. FAO추계에 의하면 2025년의 세계인구는 현재의 55억에서 약 85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1994년도 세계은행보고서

는 이와 같은 인구증가율과 세계식량 공급사정을 고려할 때 2000년대 중반에 가서는 지구상 수억의 인구가 식량 부족등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1995, 4. 27, 부산일보).

이와 같은 식량수급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수산업은 비단 우리 국민만을 위한 수산물 공급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지구상 많은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래세계의 인류를 위한 식량산업(New Food Industry in the Future World)으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갖는 지위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표 3> 세계수산업상의 한국의 위치<sup>6)</sup> (단위 : 천M/T, %)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세계의 수산물생산(A)	86,377	97,556	97,402	98,785	101,418	108,590	111,400
한국의 수산물생산(B)	3,102	3,274	2,983	3,289	3,335	3,476	3,240
한국의 비중(B/A)	3.6	3.4	3.1	3.3	3.3	3.2	3.0
한국의 순위	8	9	10	10	10	10	10

인류의 식관습은 세계 각국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부식에 대한 개념도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종류를 가지고 필수식량의 상대적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의 식관습을 통해서 본 각국의 주식 의존도는 구근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군과 맥류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군,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군으로 3대별해 볼 수 있다. 앞의 두 그룹이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육류에 의존하는 국가군이라 한다면, 우리나라를 위시한「아시아 제국」은 미식에 수산물을 대체단백질로 삼고 있는 나라들로 특징지어진다.

미식민족에 있어서 쌀밥의 독특한 향기와 생선냄새를 결합한 식관습은 식욕증진과 영양섭취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 나라의 문화형성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선과 빵의 결합에서는 결코 생선비릿내의 독특한 화학적 요소 그것이 제대로 mask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식욕증진에 반감효과를 가져와 어식문화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太田靜行, 1981).

따라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문화가 견제하는 한, 수산업은 앞으로도 제 2의 식품산업으로서 그의 절대적 지위를 갖는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수산물은 건강식품, 기호식품화 하면서 날로 그 수요가 증대하고 또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물 생산활동은 보다 더 강화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요청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수산업은 이 밖에도 소득창출과 취업기회의 부여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1996년도 수산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바다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의 총 경제가치는 연간 약 5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하여 총 145천개의 수산 해양산업경영체가 발달하고, 무려 512천명이 취업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들 취업자가구에 대하여 연간 평균 17백만원의 소득을 안겨준다.

6) 1995년 현재 수산물 생산순위는 1위 : 중국, 2위 : 페루, 3위 : 일본, 4위 : 칠레, 5위 : 미국 등이며, 한국은 10위로 대체로 이러한 국별 수산물 생산순위는 90년대 이후 큰 변동이 없다.



### 3. 수산업의 외부효과

이는 수산업 자체의 존속과 고유기능에 의해 파생된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말한다. 수산업의 존재와 어촌의 고유기능으로 말미암아 무모한 해양자원의 파괴와 훼손이 억제될 수 있다. 한편 수산업에 대해서는 수계역에 생식하는 어족자원을 항구적으로 보존, 이용하는 역할과 기능이 강조될 것이다.

첫째, 수산업의 사회 문화적 기능으로서의 관련과학의 연구 및 산업의 발달과 지역사회의 유지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수산업은 연안지역 주민의 생계수단(livelihood)임과 동시에 생활의 전부(all way of life)이다. 비록 도시민들에 있어서는 수산업이 거칠고 매력없는 직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업자들에 있어서 이것은 세련된 직업이며, 주된 생계수단으로서 삶의 한 양식이자 그들의 문화를 형성한다.

둘째, 수산 및 해양과학 수준의 향상과 기술의 축적은 그 나라의 수산 해양산업의 성장과 발달을 좌우하는 기초가 된다. <부록>을 통해서 보면 수산과학분야는 수산증 양식학을 위시하여 10개분야로 나눌수 있으며, 해방이후 이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은 총 4,850편의 연구논문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실적은 다시 연구기관별로 보면 수산관련학회가 약 60%로 가장 높고, 부산수산대학과 국립수산진흥원이 각각 20%를 점한다. 한편 학회별로는 한국수산학회가 단연 1위로서 총 2,902편의 논문중 1,279편으로 44%를 점하며, 다음은 한국어업기술학회, 한국수산경영학회 등의 순으로 연구업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은 오대양을 누빌수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를 세계 해양강국의 위치에 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산업과 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로서는 우리들에게 특유의 쾌적성(amenity)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연안역과 해양환경의 보존기능, 연안 생태계의 보존 유지기능, 국토와 영해의 확보 및 해양력 증대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바다와 연안역은 수산업과 어촌성립의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 관련된 자연적 환경자원이자 역사적 자원이다.

수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이와같은 자연경관이 수산업과 잘 결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그의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바로 이와 같은 화폐가치로 다 평가할 수 없는 수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비시장적 가치(non-market value)에 우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이다.

## V. 수산업의 역할증대를 위한 基本課題

### 1. 연근해 어업부문

#### (1)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촉진

어업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여기서 상논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다<sup>7)</sup>.

이상적인 산업구조조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경영전략차원에서 실시될 때이며, 이것이야말로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구조조정시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산업이 불황에 직면하면

7) 적정자원수준을 고려한 연근해 어업구조의 재편성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강조되어 왔다(장수호, 1980).

이의 구출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산업전체를 재조정하고 재편성하는 구조조정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된다. 이 경우는 산업의 감축전략(downsizing strategy)이 골격을 이루며, 그리하여 생산효율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수준의 업종과 업체는 도태(scrap)시키고, 반대로 유망한 업종과 업체는 이를 유지·잔존(build)시키는 Scrap and Build 논리가 적용된다(寺田由永, 1979). 이것은 잔존자의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경영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업의 체질을 바꾸어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는 산업정책의 하나이다.

정부의 어선감축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구조 조정사업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어업구조 조정사업은 곁돌고 있는 실정이며, 예상보다 그 실적도 미약한 것으로 안다. 잔존자들에 대한 기대수익이 불투명하거나, 잔존자 단체(수협)가 담당하는 재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이 그의 주된 이유가 되어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실효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 어업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것을 타율적 강요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의 대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사업의 촉진과 수산경영 여건의 개선 및 대체어업육성 등에 필요한 「어업구조조정지원특별계획」과 같은 기금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2) 생산공정과 경영기능의 검토

연근해어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구조조정사업은 원양어업과 양식업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업계의 유지기반을 한결 튼튼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어업별 어선세력감축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산공정과 경영기능차원에서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로어업의 경우 생산과 운반의 분리, 양식의 경우 사육과 관리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생산과정의 통합과 전문화의 추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단위경영을 규모화하고 조직화하는 경영기능차원에서의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이 점에서 총어업종사자수 3만명 미만에 연간 약 250만톤 이상을 어획하는 「노르웨이」의 어업생산성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노르웨이」의 어업종사자 1인당 생산량은 일본의 약 5배, 우리의 약 10배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리보다 어획성능이 월등히 높다거나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 외에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곧 생산과정과 경영기능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는 「노르웨이」수산업경영의 적절한 기능통합과 전문화의 방식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OECD, Draft, Aug 1997).

### (3) 어업관리체제의 전환

앞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지속적 성립에 불가결한 과제의 하나는 EEZ체제에 대응한 새로운 어업관리체제의 구축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총허용어획량제도 즉,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실행이라 할 것이다.

TAC제도는 오늘날 어업관리방식의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는 UN해양법상의 의무조항이기도 하다(해양법 제61조). 어획노력량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간접관리로서는 어업관리의 소

기의 목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곳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때문이다. 우리와 인접한 日本, 中國 나아가서는 세계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을 위해서도 TAC제도의 실시는 불가피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다확성어종의 양육량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C 수준이 과학적으로 결정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어획노력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므로 어업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과제가 된다. 모든 어업과 어종에 대한 일률적인 TAC제도 도입은 어렵지만 적어도 연근해 어업을 좌우하는 주요 어업과 어자원에 대해서는 이의 실행을 통해 어업질서와 자원관리체제를 크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sup>8)</sup>. 이와 함께 연안어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조직의 어장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업허가제도와 조업구역 문제전반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수협조직의 재편성 문제

수산단체계통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첫째, 연근해어업자들에 한정되어있는 현재의 수협조합원 자격을 원양어업 분야에도 이를 확대하여 협동조합 설립의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양어업자들도 수협계통조직의 일원이 되어 전 업계가 개방경제시대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입수산물로 인하여 업계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고, EEZ체제로 인하여 원양어업의 진출이 막혀 있는 현단계에서 생산자 조직이 과거처럼 연근해어업부문과 원양어업부문에 양분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원양어업부문에 대한 수협조직의 길을 계속 봉쇄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극소수의 대규모 원양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원양업체는 현재 근해어업과 규모차도 크지 않을 뿐더러 경영방식도 비슷하다. 이제 수산업에 있어서 대항의 진정한 상대는 산업내 계층간이 아니라 산업외적 존재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의 수산업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계전체의 공멸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산업의 재편성문제와 국제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협도 여기에 대비한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규모화가 필요하다. 국내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환경위협은 OECD가입이후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협중앙회는 도지회의 지도업무 등 비 신용활동을 단위수협에 이관하는 대신, 신용기능을 재정비하여 전문화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협신용사업을 수협계통조직으로부터 완전 분리하는 문제는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과제이다.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수익기반이 없는 곳에서는 협동조합의 필요한 경제적 역할도 진정한 협동조합운동의 결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단위수협은 중앙회 도지회의 구매, 지도사업을 이양받아 이름 그대로 「종합형 수협」으로 재편하여 어업자들의 요구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강화하고 기능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8) 1995년 12월 제15차 수산업법 개정을 통하여 TAC관련 조항의 신설과(수산업법 제54조의2) 관련법률(수산자원보호령)을 전면 개정하여 TAC를 정의하는 한편(수산자원보호령제2조), 동령 제27조의2, 제27조 의3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TAC 대상어종과 어업의 결정, 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업자원정책의 일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것이다.

### 3. EEZ下的 원양어업 問題

UN해양법 발효로「공해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해양이용상의 오랜 국제관습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하에서는 해양의 분할지대와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일반화 되어 세계 전 해양은 앞으로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주요 연안국이 거의 배타적으로 지배해 나갈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 합쳐 EEZ면적이 447천 Km<sup>2</sup>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신해양법체제하의 우리나라 수산업은 원양어업의 조업어장제한, 근해어업의 주변수역 축소 등으로 모두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표 4> 주요 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면적과 순위 (단위 : 1,000km<sup>2</sup>)

순위	국명	면적	순위	국명	면적	순위	국명	면적
1	미 국	7,621	12	칠 레	2,289	23	남아공화국	1,008
2	호 주	7,009	13	노르웨이	2,025	24	중 국	955
3	인도네시아	5,410	14	인 도	2,015	25	몰 디 브	951
4	뉴질랜드	4,835	15	필 리 핀	1,891	26	영 국	934
5	카 나 다	4,699	16	포르투갈	1,775	27	아이슬란드	859
6	러 시 아	4,492	17	마다가스칼	1,292	28	페 루	780
7	일 본	3,862	18	스 페 인	1,220	29	소 말 리 아	766
8	프 랑 스	3,858	19	모리셔스	1,183	30	배 트 남	641
9	기리바시	3,550	20	알 쟌 친	1,165	31	콜롬비아	598
10	브 라 질	3,169	21	에 쿠 아 돌	1,159	32	통 가	591
11	멕 시 코	2,852	22	피 지	1,135	33	한 국	447

- 주 : 1) 한국은 남북한 합계 면적임.  
 2) 세계연안국가의 수는 151개국임.  
 3) 세계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총면적은 약 115,484천km<sup>2</sup>로 추산.  
 4) 이상의 국별 EEZ면적은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는 때가 많음.  
 자료 : 최정윤, 국제해양법시대의 원양어업경영, 해양문화, 제 5권, 1996. 6.

그런데도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원양어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대명제다. 특히 대중소비 비중이 높은 명태와 오징어는 국내 수요량의 80% 이상을, 그리고 고급어종인 참치류는 100%를 각각 원양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어업협력강화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한 대안으로서 대외어업 협력사업의 전문화와 해외어장개척을 위해 가칭「해외어업협력개발기금」과 같은 기구의 창설을 필요로 한다.

### 4. 어업경영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어업경영은 지난 5년간 모든 업종에서 어업경비 상승율이 매출액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그 결과 어업이익율의 현저한 감소와 자산성장의 장기정체 및 어업신규투자의 일률적인 감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경영상의 압박요인으로부터 그의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산업 역할의 再認識과 기본과제

<표 5> 연근해 어업경영의 수지상황 (1경영체당 평균) (단위 : 천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95/90
1. 어업수익	180,967	212,286	234,427	279,968	316,055	337,985	186.8
2. 어업지출	155,623	180,108	206,667	240,605	266,619	293,107	18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인건비	(40.1)	(42.6)	(38.5)	(46.2)	(42.2)	(43.7)	205.1
2) 연료비	(14.3)	(12.5)	(12.6)	(12.2)	(12.3)	(11.5)	150.6
3) 어선어구비	(15.2)	(14.8)	(14.6)	(15.0)	(15.1)	(15.6)	192.7
4) 감가상각비	(3.6)	(3.6)	(3.1)	(3.1)	(3.3)	(2.6)	138.6
5) 판매비기타	(26.8)	(26.5)	(31.2)	(23.5)	(27.1)	(26.6)	187.5
3. 어업순이익(1-2)	25,344	32,180	27,760	39,363	49,436	44,898	177.1
4. 어업이익율	(14.0)	(15.2)	(11.8)	(14.1)	(15.6)	(13.3)	

첫째, 선원노동확보문제와 이에 따른 높은 인건비 부담

<표 5>를 보면 우리나라 수산경영체는 총 어업경비에서 선원급료와 선원주부식비 및 복지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총액이 약 42%를 점한다. 이러한 높은 인건비 부담과 선원수급사정의 악화로 매출어시마다 어업경영체가 겪는 고충은 이루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에 있어서 생력화기술의 획기적인 개발과 함께 어로작업체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외국인 선원의 승선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둘째, 어선어구비, 선박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지출의 압박

<표 6>에 의하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위시해서 거의 전 업종이 90%이상의 고정자산비중을 갖는다. 이와같은 고정자산의 과다보유는 어선수리비,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등 높은 고정비 부담을 유발하게 되며, 그만큼 손익분기점도 비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일정한 어획성적이나 어가수준이 여기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어업경영체는 채산성의 악화로 정상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당연하다. 최근 수산경영자들이 어업자원사정과 함께 수입개방 문제를 심히 우려하는 것도 과거와 같은 어업생산증대나 고어가에 의한 경영기반이 점차 상실되어가는 현상 때문이다.

<표 6> 주요 연근해어업의 재산구조 (1 경영체당 평균, 1994)

	금액(천원)			구성비(%)		
	고정자산	유동자산	계	고정자산	유동자산	계
대형기저	677,459	20,811	698,270	96.8	3.2	100.0
대형트롤	1,717,911	56,833	1,774,744	96.8	3.2	100.0
대형선망	4,831,831	508,973	5,340,804	90.5	9.5	100.0
근해안강망	236,551	20,662	257,213	91.3	8.7	100.0
근해채낚기	355,694	20,858	376,552	94.5	5.5	100.0
기선권현망	921,801	65,659	987,460	93.3	6.7	100.0
평균	290,352	30,478	320,831	90.5	9.5	100.0

주 : 평균은 연근해 허가어업전체 평균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서, (1995)로부터 작성.

셋째, 수산경영은 원천적으로 가격결정력이 미약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수산업은

수산경영론집

원가중심 가격결정력(cost-oriented pricing)이 취약한 산업이다<sup>9)</sup>. 그러므로 생산자재가격이나 유가인상 등에 대비한 업계의 조직적 대응이 없으면 중소어업자들 대부분은 항상 경영상의 불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입장에 놓인다. 수협조직의 중요성과 그의 역할증대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점에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계속된 어획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인상이 거의 60%에 달했다는 것은 정부차원에 있어서나 수협의 경제사업차원에서 방관할 수 없는 사태라 할 것이다.

넷째, 어업경영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대부분의 수산경영체들은 조업상태, 어획실적, 어획물조성, 해상사고, 어가변동 등 어업경영을 둘러싸고 있는 예측불허의 내·외적 경영환경변화에 대해 대응력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어업성장이 정체되고 매출액 이익율이 크게 저하된 이유의 하나도 이러한 어업경영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7>에 의하면 원양어업경영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총 위험계수가 약 3배, 비체계적 위험계수는 약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계측된다. 곧 필요이상의 경영「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실정이며, 연근해어업경영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본다. 정부의 수산업 지원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수산경영상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협도 금융사업만으로 어업생산자들의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표 7> 산업별 경영위험계수 측정대비

	원양어업	음료식품업	화학공업	전기기계	건설업	금융업	증권업
총위험	0.0184	0.0054	0.0043	0.0066	0.0058	0.0052	0.0094
체계적	0.0029	0.0021	0.0032	0.0042	0.0039	0.0034	0.0059
위험비체계적	0.0155	0.0038	0.0011	0.0024	0.0019	0.0018	0.0035
위험베타계수	0.0830	0.7000	0.8800	1.0000	0.9600	0.9000	1.1700

주 : ① 총위험 : 체계적위험+비체계적위험, ② 체계적위험 : 경기변동등에 의한 위험  
비체계적위험 : 매출액, 조업상태 등에 따른 위험, ③ 어업은 총위험에서 타 산업보다 약 3배, 비체계적 위험은 약 5배 가까이 높다.

자료 : 이종원, 원양회사의 사업다각화에 관한 연구, 부산수산대학 석사학위논문, 1997. 2.

5. 어촌지역의 활성화

어촌개발과 연안지역 활성화 문제는 수산경영기반의 강화와 어업의 사회 문화적 기능의 고도화차원에서 요청되는 해결과제이다.

어촌의 활력저하 문제는 첫째 수산업의 쇠퇴, 둘째 수산경영의 부진, 셋째 지역간 산업간의 경제 및 생활 격차의 3대 요인에 의해 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어촌문제 해

9) 상품의 판매가격 결정에는 비용중심가격, 경쟁중심가격 및 수요중심가격의 3가지 방법이 있다. 비용중심가격은 제품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한 이폭가산 가격이며, 공산품가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쟁중심가격은 조기진출기업의 선도가격이 곧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가전제품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수산물 가격은 일정한 생산「코스트」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격수준이 항상 소비자 시장의 수요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데 문제가 있다.(최정윤, 「양식산업과 시장개방」, 한국천해양식의 문제점과 대책, 1993).

결을 위하여 1994년에 「농어촌특별세」를 설치하고, 이것을 재원으로하여 대대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현재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재정지원규모와 지원방법, 제도 및 정책차원에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최정윤 등, 1997).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어촌개발권역의 설정과 권역당 투자규모 결정을 목표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시적인 어촌개발정책이 아닌, 장기에 걸쳐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과 어항법의 개정, 통합 등 제도의 재검토와 아울러 현행 농어촌특별세를 대신할 2000年代의 어촌유지를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방안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합적인 어촌개발정책의 지속적 추진

지금까지의 어촌개발정책은 어업생산 위주의 기능별 투자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1세기의 어촌은 생산과 생활이 공존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어촌광역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어촌개발계획의 내용은 어촌의 물적계획과 경제계획 및 사회계획을 망라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어야 하고, 한편 어촌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조화시킨 새로운 지역 정비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업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미래지향적 어항기능의 개발

예를 들어 양식업 중심 어항의 경우에는 어선어업중심 어항과는 달리 양식생산물을 채취, 하역하고 처리하며, 양식물의 유통 및 가공공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항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업 거점공간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설계, 개발하여 그 안에서 양식생산자재의 공급·제작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 6. 연구개발 기능의 強化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생활공간을 확대시켜 왔다는 역설적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수산·해양과학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조사활동의 강화는 해역공간의 이용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용효율을 보다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안역 공간자원의 개발 이용에서부터 공해자원에 이르기까지 조사와 연구를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미지의 수산·해양 개척에 대한 우리의 국제적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원양어업 발달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수산기술은 公共財의 측면이 강한데 반해, 개별기업의 전유가능성(appropriability)이 낮기 때문에 기술개발활동은 국가나 정부책임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마땅하다<sup>10)</sup>. 그리고 조사 연구분야는 기존의 자연과학적 연구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측면에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높은 연구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수산경제실이 타 연구기관의 해양정책 연구기능과 통합

10) 이점에 관해서는 최정윤, "천해양식어업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 기술개발활동을 중심으로 -", 수산경영론집, Vol. 14, No. 2., Vol. 16, No. 1., 1985. 6을 참고바람.

하여 해양수산부 산하의「수산·해양정책연구기관」으로 확대·독립된 것은 매우 타당하며, 수협경제연구소는 수협의 조직 및 사업기반 전문연구기관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해체된 국립수산물진흥원의 수산경제분석실은 어촌지도사업과의 연계를 고려, 어업경영진단과 평가업무까지 겸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성의 향상과 함께 자체 내의 자연과학부문과 상호보완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진흥원 본원내에 다시 두는 것이 조직원리상 타당할 것이다.

## VI. 결 론

우리나라 수산업은 현재 전환의 시련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어떠한 산업에서건 「유치단계 - 개발단계 - 성장단계 - 성숙단계 - 사양단계」의 5단계 과정이 존재하며, 각 산업은 이 5개의 cycle을 항상 반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내재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사양국면(decline phase)이 바로 그 산업의 전면적인 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비관적인 견해는 금물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업계 스스로가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의 장기추세에 맞추어 꾸준한 경영의 합리화, 생산의 혁신,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 등의 노력을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재의 어업구조조정사업과 그의 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과 아울러, 특히 조사연구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사회적 요구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국가정책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수산업 발전정책의 수립과 장기「비전」의 제시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수협중앙회, 수산경영조사보고서, 1990 - 1995.
- 이종원, 원양기업의 사업다각화에 관한 연구, 부산수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
- 장수호, 연근해어업구조재편성의 의의와 목표, 부산수산대학 논문집, 제27권, 1980.
- 최정운, 국제해양법시대의 원양어업 경영, 해양문화, 제5권, 1996. 6.
- 최정운 외 4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과 그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수산기업 연구소, 연구조사 제17호, 1997. 3.
- \_\_\_\_\_, 황순철, 어선원의 직업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6권, 제1호, 1996. 6.
- 寺田由永, 産業構造と農業問題, 日本經濟評論社, 1979.
- 太田靜行, 魚臭, 畜肉臭, 恒星社, 厚生閣, 1981.
- 農林水産省, 國際農林水産統計(日本), 1995.
- FAO, Year Book of Agriculture Statistics, 1992.



수산업 역할의 再認識과 기본과제

\_\_\_\_, Year 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2.

Jackson Roy I., Fisheries and The Future World Food Supply, Fisheries Management, Edited by Robert T. Lackey, Oxford London Edinburgh, 1972.

OECD, Draft Review of Norway Fisheries in 1996, AGR/FI, Aug 1997.

Pearce Peter F., Turning the Point ; A New Policy for Canada' s Pacific Fisheries, The Commission on the Pacific Fisheries Policy 292, Vancouver, 1982.

Shrank Wiliam E., An Inshor Fishe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3, pp. 335 - 367, 1992.13) E U, New Common Fisheries Policy, 1994.

수산경영론집

부 록

우리나라의 수산·해양관련과학 연구업적 총괄 (1945~1996)

1. 수산·해양과학 관련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총실적
2.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의 관련학문 연구업적
3.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조사 업적
4. 수산·해양관련학회의 연구실적

1. 수산해양과학 관련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총실적(1945~1996) (단위: 편)

	부산수산대학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관련학회	계
1. 수산증양식학(수산자원, 수산양식, 어병학 포함)	350	537	968	1,855
2. 어구어법학	176	146	280	602
3. 해양과학	273	156	331	760
4. 식품공학(영양학 포함)	33	133	479	645
5. 항해학	13	-	38	51
6. 냉동공조공학	5	-	124	129
7. 선박조선공학 (기관공학 포함)	39	-	137	176
8. 항만·해양토목학	5	-	16	21
9. 수산해양교육학	1	-	38	39
10. 수산경제·경영학	66	15	491	572
계	961	98	2,902	4,850

- 주: 1)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조류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협수산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업적은 미상임.  
 2)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여수수산대학교, 군산대학교 해양산업대학,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등의 연구업적 미상임.  
 3) 학문분야의 분류기준은 통념에 의함.  
 4) 연구업적기준은 논문편수 및 사업보고서 기준임.

자료: 각 연구기관의 1945부터 1996년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및 학회지 등으로부터 조사한 것임.

2. 부산수산대학의 관련학문 연구업적(현 부경대학교) (단위: 편)

	수대논문집 (1965~1994)	수대연구보고서 (1956~1994)	수산과학연구소 (1976~1994)	해양공동연구소 (1969~1995)	계
1. 수산증양식학(수산자원, 수산양식, 어병학 포함)	-	77	24	249	350
2. 어구어법학	-	22	129	25	176
3. 해양과학	-	37	60	176	273
4. 식품공학(영양학 포함)	-	30	1	2	33
5. 항해학	-	-	-	13	13
6. 냉동공조공학	-	5	-	-	5
7. 선박조선공학 (기관공학 포함)	-	6	-	33	39
8. 항만·해양토목학	-	5	-	-	5
9. 수산해양교육학	-	-	-	1	1
10. 수산경제·경영학	64	2	-	-	66
계	64	184	214	499	961

자료: 부산수산대학교의 논문집, 연구보고서, 연구소의 연구논문의 집계임(1965~1995).

수산업 역할의 再認識과 기본과제

3.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 조사업적

(단위 : 편)

	1945이전	1945~1961	1962~1980	1981~1996	계
1. 수산증양식학(수산자원, 수산양식, 어병학 포함)	30	52	251	204	537
2. 어구어법학	31	11	65	39	146
3. 해양과학	37	1	71	47	156
4. 식품공학(영양학 포함)	38	27	46	22	133
5. 항해학	-	-	-	-	-
6. 냉동공조공학	-	-	-	-	-
7. 선박조선공학 (기관공학 포함)	-	-	-	-	-
8. 항만·해양토목학	-	-	-	-	-
9. 수산해양교육학	-	-	-	-	-
10. 수산경제·경영학	-	-	-	15	15
계	136	91	433	327	987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의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연구보고서, 시험조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로부터 작성.

4. 수산·해양관련학회의 연구실적

(단위 : 편)

	한국수산학회지 (1946~1994)	한국어업기술 학회지 (1965~1996)	국양식학회지 (1968~1996)	한국어병학회지 (1965~1996)	한국어류학회지 (1989~1996)	한국냉동공조 학회지 (1962~1994)	한국수산경영 학회지 (1977~1996)	한국수산경제 학회지 (1994~1996)	한국수·해양 교육학회지 (1988~1996)	계
1. 수산증양식학(수산자원, 수산양식, 어병학 포함)	447	77	195	133	115	-	-	-	-	966
2. 어구어법학	75	194	-	-	-	-	-	-	11	280
3. 해양과학(환경공학포함)	212	119	-	-	-	-	-	-	-	331
4. 식품공학(영양학 포함)	471	3	-	-	2	-	-	-	1	479
5. 항해학	5	33	-	-	-	-	-	-	-	38
6. 냉동공조공학	29	-	-	-	-	-	-	-	4	124
7. 선박조선공학 (기관공학 포함)	4	133	-	-	-	-	-	-	-	137
8. 항만·해양토목학	13	3	-	-	-	-	-	-	-	16
9. 수산해양교육학	-	6	-	-	-	-	-	-	32	38
10. 수산경제·경영학	23	22	-	-	-	-	433	12	1	491
계	1,279	590	195	133	117	54	433	12	49	2,902

자료 : 수산관련 9개 학회의 창간호부터 1996년 현재까지 각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논문편수임.

## **A Reconsider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and Its Basic Problems**

Choe, Jung - Yoon

### **Abstrat**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is now in a critical transitional stage. That is, broadly speaking, there are two dominant factors that constra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fishery and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fishing industry. First of all, the global fishing industry has experienced many significant changes due to the execution of U.N. maritime law, the establishment of EEZ(the Exclusive Economic Zones), the increased roles of WTO(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well as Korea being a member of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econd,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is faced with the following domestic troubles, such as the increasing fishing expenses, insufficient labor supply, and the collapse of traditional local co-oper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 villages, etc.

However, the demand for aquatic products of home consumers not only continues to increase but also is shifting to select more valuable species, completely ignoring the above-mentioned serious pressures incurred by the Korean fishery. To solve these problems and keep developing steadily, it is necessary for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to adopt a more active and flexible development pattern in order to reset up the regional economic base in fishing villages nation-wide and make the exploitation of fishing resources balance.

The paper gives an reconsideration to the primary alternatives facing the Korean fishery and its prospective roles in a realistic and far-sighted attitude. It may serve as an endeavour in seeking an outlet for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to advance forwardly and lastingly.